①

②

① 제3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실시된 정부포상에서 산재예방유공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충북산업보건센타가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② 또한 울산산업보건센타 박후근 부장, 충북산업보건센타 류명단 과장이 재해예방기관 임직원으로서 노동부장관 표창에 선정되었다. 위 사진은 류명단 과장의 시상 모습.

보건관리대행기관 중 충북산업보건센타가 최고!

충북산업보건센타는 2003년 산재예방유공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선정,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 보건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충북산업보건센타는 2003년 현재,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내(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옥천군), 충주지방노동사무소 관내(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270여개 사업장, 20,0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83개 보건관리대행기관 중에서 충북산업보건센타가 2003년 산재예방유공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의 재해발생률 감소에 있다.

2002년도 충북산업보건센타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이 충북지역 사업장 재해발생률이 0.86%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0.259%를 기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재해발생률이 2000년 0.409%, 2001년 0.371%, 2002년 0.259%로 2001년 대비 2002년에는 22.4%의 산업재해 감소율을 보여 그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대행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율이 2000년 16.9%, 2001년 23.8%, 2002년 21.4%로 점차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북산업보건센타는 1988년 설립 당시부터 청주, 충주지방노동사무소 관내 230여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20,000여명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신설, 누락된 사업장을 꾸준히 개척하여 2002년에는 590여 개소, 32,000여명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탁월한 전문 산업보건기관이다.

15년의 짧은 역사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충북산업보건센타는 산업보건 전문인력 55명이 합심, 단결하여 최상의 '근로자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의 건강을 항상 보살피는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가장 확실한 '건강주치의'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울산산업보건센타 박 후 근 부장

산업보건계통으로 외도를 시작한지 14년이나 지났다.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생각하지만 제대로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여유도 없이 달려온 것 같다.

2003년도는 나에게 특별한 해이다.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되어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시상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갔다. 과연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가져 보았다. 나보다 더 수고를 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업무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작업장의 작업환경개선에 정말로 많은 기여를 했는가, 등등의 반문을 가질 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생겼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고 이 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 굴곡의 연속이 반복되면서 지금에 이른 것 같다. 이는 제도 및 사회적인 여건 등이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그 동안에 작업환경측정 관련 제도도 많이 변화되어 이제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고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큼 근로자나 사업주의 인식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새로운 형태의 직업성질환에 대해 언급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제 자리 걸음만 하여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 불신이 야기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보건관계자 모두의 일이라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작업환경상태를 측정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쾌적한 작업환경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각자의 근무환경,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자세와 업무수행에 대해 돌이켜보면 보람된 것보다는 반성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앞으로 보람된 것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갈고 닦아 근로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상이 돌아오게 해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근로자 건강지키기'에 더욱 정진할 터…

충북산업보건센타 류 명 단 과장

1991년 7월 여름….

청주소재 ○○병원 방사선과 외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임상에 근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가 한두

번씩 느끼는 일, 환자와 보호자를 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나 또한 예외일수 없었다.

그런 시기에 협회에 먼저 입사한 친구가 차를 타고 다니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다며 너도 직장을 옮겨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에 91년 7월에 입사한 곳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센타였다.

처음엔 산업간호가 무엇인지, 보건관리대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병원에 갇혀 있다가 동료들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즐겁게 일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조금씩 알면서 어느새 환자라는 말보단 산업현장의 근로자란 말이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더니, 이젠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매김 하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이러한 영광의 큰 포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지부장님,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동료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동안 소규모 국고지원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하면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사업주의 작업환경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인식도 변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병예방이 무재해 산업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직업병예방 및 산업재해 감소에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사업장 담장자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삶의 질이 향상 되면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산업보건서비스 요구는 다양화 되고 경쟁기관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 서비스의 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사업장 질(QI)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부서원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보건관리대행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사업장 관리, 사업장 만족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요즈음 사회경기의 침체로 사업장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나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및 음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예방, 그리고 요즈음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 어느때보다 더 긴장이 된다.

앞으로 협회의 "VISION 2005"를 향하여 변화하는 경쟁시대에 발 맞추어 남보다 솔선수범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경쟁기관에 앞서가는 리더자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하여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해 본다.